

2026.07.27.

VOL.599

글로벌바이오헬스산업동향

GLOBAL BIO-HEALTH INDUSTRY TREND



FOCUS

EU RAMP UP 파일럿 출범과 보건 위기 대응 제조 역량 강화 전략

CONTENTS

※ 본 내용은 동향 조사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01

FOCUS

EU RAMP UP 파일럿 출범과 보건 위기 대응 제조 역량 강화 전략

1

02

무역통상

미국, 2028년부터 제네릭의약품에 최대 100% 관세 부과 예정

5

브라질, 미국 관세에 대응해 제약 특허권 정지 검토

5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무역정책 청문회서 해외 의약품 가격통제 문제 제기

5

미국 국방보건국, 군 필수약품 공급망 진단을 위해 액센츄어와 단독 계약

6

이스라엘, 2025년 수출 사상 최고 1,690억 달러 ... 제약 등 산업 전반 성장

6

우즈베키스탄-아프가니스탄, 제약 협력 이행계획 채택 ... 교역 5억 달러 목표

6

파키스탄-중국, 14억 달러 규모 제약·백신 생산 협력 협약 체결

7

미국, 강제노동 방치한 60개국에 최대 12.5% 관세 부과

7

인도 제약업계, 미국 제네릭의약품 관세 발표에 파트너십 강화로 대응

7

03

의료 인공지능

오레이카, 오픈소스 AI 신약 발굴 엔진 '오픈DDE' 공개

8

마인드빔 AI, 생성형 AI로 아세트아미노펜 대체 진통제 후보물질 3종 발굴

8

토론토대학 연구팀, AI 기반 의약품 부족 조기 경보 플랫폼 '마트릭스' 개발

9

NCS, 연간 AI 포럼서 헬스케어 포함 산업별 AI 파트너십 및 기업용 AI 플랫폼 확대 발표

9

비즈.AI-존슨앤드존슨, AI 경막하 출혈 솔루션 '비즈 서브듀얼' 상용화 협력 체결

10

IDC, AI·웨어러블 결합으로 반응형 의료에서 예방형 의료로의 전환 가속화 전망

10

사노피, AI 전사 도입 전략으로 신약 발굴·제조·환자 지원 전 과정 혁신 추진

11

글로벌 헬스케어 생성형 AI 시장, 2033년 306억 8,000만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11

GLOBAL BIO-HEALTH INDUSTRY TREND

※ 환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전월 평균

04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캐나다 신약 발굴 아웃소싱 시장, AI 통합 및 학계 협력 확대로 성장세 가속화	12
베링거 인겔하임,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자스케이드’ 영국 MHRA 승인 획득	12
노보 노디스크, 세계 최초 주 1회 기저 인슐린 ‘아위클리’ 인도 시장 출시	13
서던캘리포니아대학 연구팀, 위고비 심혈관 적응증 확대 후 메디케어 처방 급증 확인	13
NN, 로봇 보조 수술 플랫폼 핵심 부품 공급사 자격 취득 … 의료기기 사업 성장 가속화	14
KKR, 메드테크 정밀 제조 플랫폼 ‘앨린트라’ 출범 … 프레시파트 기반 플랫폼 확장 추진	14
페덱스, 헬스케어 물류 전담 조직 ‘페덱스 라이프 사이언스’ 출범	15
GE 헬스케어-메이요 클리닉, 전립선암 방사성리간드 치료 개인 맞춤화 연구 협력 체결	15

05

의료서비스

중국, 하이난·상하이·선전 중심으로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 확대 추진	16
캐나다, 2026년 세계 의료관광 목적지 주요 국가로 주목	16
미국인들, 높은 의료비 부담에 아시아로 의료관광 확대 … 세대 간 이용 목적 상이	17
바틱 에어-국립심장연구소, 말레이시아 의료관광 확대 추진	17
태국 관광청, 아로카고를 통해 의료·웰니스 서비스 285개 기관 글로벌 시장과 연계	18
사운드 피지션스, 참헬스 EHR 도입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유연성 확보	18
헬스뮤추얼 그룹-온코케어, 범아시아 암 환자를 위한 원스톱 케어 협약 체결	19
한국·태국·대만, 국가 주도 뷰티관광 육성 경쟁 … 프랑스는 미용 시술 규제 강화 지속	19

06

글로벌 행사

FOCUS EU RAMP UP 파일럿 출범과 보건 위기 대응 제조 역량 강화 전략

1 COVID-19 이후 EU 의료 대응수단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과 정책적 대응

COVID-19가 드러낸 EU 의료 대응수단 생산 체계의 병목 구조

- EU 제약 공급망은 수십 년간의 글로벌화 과정에서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s)* 생산이 역외로 집중되는 구조로 재편되었으며, 중국과 인도가 전 세계 원료의약품 생산량의 약 55%를 점유하고 있어 지역적 공급망 집중에 따른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음

*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결정하는 핵심 성분으로 완제의약품(Drug Product) 생산의 전 단계에서 사용되는 핵심 원료

- COVID-19는 이 같은 공급망 취약성을 현실로 드러냈으며, 특히 △백신 생산 역량 부족 △원자재 부족 △물류 병목으로 EU 내 의약품 수급 차질이 발생하였고 일부 제3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EU의 역외 의존 구조가 공중보건에 직접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확인됨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조사에 따르면 EU 내 필수약품 부족 사태의 50% 이상이 제조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 봄 EU 11개 회원국 보건장관이 중국 의약품 의존이 EU 방위 체계의 취약점이라고 경고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의료 대응수단 생산 체계 강화에 대한 압박이 가속화됨

EU 의료 대응수단 전략 채택과 RAMP UP 출범의 정책적 배경

- EC는 2025년 7월 의료 대응수단 전략(Medical Countermeasures Strategy, MCM Strategy)**을 채택하여 △차세대 독감 백신·항균제 내성 항생제·항바이러스제 개발 △의료 대응수단 가속기(Medical Countermeasures Accelerator)*** 설립 △의료 대응수단 지능형 감시 시스템 구축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제조 파트너십 구축을 핵심 과제로 설정함

** COVID-19 및 생물안전 위협 등 모든 유형의 보건 위기에 대한 의료 대응수단의 가용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

*** EU 의료 대응수단 연구개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단일 창구로 통합하기 위해 신설된 기제

- 또한, 2026년 7월 2일 의료 대응수단 전략의 핵심 이행 과제인 의료 대응수단 신속 제조 파트너십(Rapid Agile Manufacturing Partnership for Union Protection, RAMP UP) 파일럿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하였으며 EU 역내 △제조사 △공급업체 △혁신기업으로 구성되는 자발적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 시 의료 대응수단 생산을 신속하게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RAMP UP에 적용되는 의료 대응수단은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기타 의료기기를 포괄하며, COVID-19에서 드러난 위기 시 생산 파트너 식별 지연과 필수약품 공급망 확대 병목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설계됨

**** 의료 종사자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갑 △마스크 △고글 등의 장비

| COVID-19가 드러낸 EU 의료 대응수단 공급망 취약성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원료의약품 역외 의존	중국·인도가 전 세계 원료의약품 생산의 약 55% 점유	지역적 공급망 집중에 따른 취약성 심화
제조 역량 파편화	EU 내 의약품 부족 50% 이상이 제조 문제 기인	일부 제3국 수출 제한 조치로 역외 의존 구조의 공중보건 위협 확인
생산 파트너 식별 지연	위기 발생 시 적합한 제조 파트너 확보에 수개월 소요	단일 공급업체 의존, 제조 역량 부족, 원료 조달 불안정이 주요 원인
공급망 가시성 부족	위기 시 EU 전역 생산 역량 현황 파악 불가	제조 역량 강화의 핵심 이행 수단으로 RAMP UP 출범
보건 대비태세 거버넌스 분산	회원국별 개별 대응으로 EU 차원 조정 미흡	EU 역내 자발적 제조 네트워크를 통한 위기 시 생산 확대 목표

[자료] ❶European Commission, ❷European Commission, ❸European Commission

2 RAMP UP의 제도 설계와 기존 EU 생산 지원 체계와의 차별점

RAMP UP의 구조와 작동 방식

- RAMP UP은 연구와 제조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EU와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내 △제조사 △공급업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CDMO)* △혁신기업으로 구성되는 자발적 참여형 제조 협력 네트워크로, 보건비상대응청(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Authority, HERA)이 주도하여 위기 시 의료 대응수단 생산 확대에 즉각 동원될 수 있는 산업 역량을 사전에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함
* 의약품 개발부터 상업 생산까지 전 과정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 제조 기업으로 자체 제품 없이 제3자 의뢰 기반으로 운영됨
- RAMP UP의 핵심 작동 메커니즘은 평시에 참여 기업들이 △생산 역량 정보 △공급망 현황 △운영 워크플로(Workflow)를 HERA와 공유하여 위기 시 신속히 활용 가능한 생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 조달 계약 및 참여자 간 매칭 인센티브를 통해 생산을 즉각 확대하는 구조로 설계됨
- RAMP UP 파일럿 단계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제약사들이 △위기 시 생산 확대를 위한 절차와 접근 방식 시험 △공급망 정보 공유 관행 △운영 워크플로를 정립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EC는 관련 파트너들이 신청을 통해 이니셔티브의 실질적 운영 방식을 함께 설계할 것을 초청하고 있음

EU FAB·HERA Invest 등 기존 체계와의 역할 분담 및 차별점

- EU FAB**는 2022년 출범한 백신·치료제 분야 상시 가동 생산 역량 네트워크로 위기 발생 초기 단계에 시장이 자체 생산을 확대하기 전까지 즉각 활성화 가능한 예비 생산 역량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춤
** EC와 유럽보건디지털집행청(European Health and Digital Executive Agency, HaDEA)이 공동 운영하는 EU와 EEA 내 백신·치료제 제조사 네트워크로 비상시 신속한 생산 활성화를 위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함
- 반면, RAMP UP은 백신과 치료제에 국한되지 않고 △진단키트 △PPE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 대응수단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 공유 및 매칭 기반의 유연한 네트워크 구조를 채택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 HERA 투자(HERA Invest)*** 프로그램은 2023년 8월 출범하여 1억 유로(한화 1,758억 원)를 투입해 보건 위기 대응 의료 대응수단을 개발하는 EU 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비용 최대 50%를 비회석성 벤처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 금융 지원 제도로, RAMP UP이 생산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HERA Invest는 연구개발 단계 투자 지원에 특화되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함
*** △감염병 △화학 △항균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 등 우선 보건 위협 대응 의료 대응수단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과 HERA가 공동 운영하는 비회석성 벤처 대출 프로그램
- 의료 대응수단 가속기는 현재 여러 EU 프로그램에 분산된 의료 대응수단 연구개발 자금 지원 체계를 단일 창구로 통합하여 투명하고 경쟁적인 자금 지원 절차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RAMP UP △EU FAB △HERA Invest와 함께 의료 대응수단 전략의 ①연구개발 ②제조 ③조달로 이어지는 전주기 대응 체계를 구성함

| RAMP UP과 EU 의료 대응수단 생산 지원 체계의 역할 분담 구조



[자료] ①European Commission, ②European Commission, HaDEA, ③European Commission

3 RAMP UP이 EU 제약·바이오 제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EU 제약·바이오 제조 산업 구조 변화

- EU 제약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4,880억 유로(한화 858조 5,676억 원) 규모로 글로벌 제약 매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COVID-19 이후 EU 역내 생산 역량 강화 기조가 확산되면서 유럽 CDMO 시장이 미국 대비 수주 역량에서 우위를 점하는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RAMP UP은 평시부터 EU와 EEA 내 △제조사 △공급업체 △바이오텍(Biotech) △CDMO가 생산 역량 정보를 HERA와 공유하는 구조를 제도화함으로써 위기 발생 시 적합한 생산 파트너를 신속하게 식별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였으며,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 및 의약품 공급부족·안전 실무운영그룹(Executive Steering Group on Shortages and Safety of Medicinal Products, MSSG)*과의 협력 하에 데이터 공유 체계를 설계하여 중복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됨
* EU 내 의약품 부족 사태 및 의약품 안전 문제에 대한 조율·대응을 담당하는 EC 산하 집행 기구
- 유럽 CDMO 시장은 2026년 기준 약 406억 5,000만 달러(한화 62조 789억 원) 규모로 203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7.04%로 전망되며, EMA 신규 허가 신청의 65% 이상이 생물약품·첨단치료제 관련 품목인 상황에서 EU 역내 생산 의무화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RAMP UP은 유럽 CDMO 시장의 구조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스타트업 △중소 제조사 △전문가도 위기 시 신속 조달 계약 및 참여자 간 매칭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대형 제약사 위주의 기존 위기 대응 체계에서 소규모 혁신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글로벌 의료 대응수단 공급망 재편과 전략적 함의

- EC는 2026년 5월 핵심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 CMA)**을 채택하여 △EU 역내 필수약품 및 원료약품 생산 강화 △공급망 다변화 △역외 의존도 축소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였으며, RAMP UP은 이 법적 프레임워크의 실질적 이행 수단으로 기능하여 EU의 의약품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 확보를 가속화하는 구조로 설계됨
** EU 역내 필수약품·원료약품 생산 강화 및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역외 의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EU의 핵심 제약산업 정책 법안
*** 지정학적 위기와 보건 위기 등 외부 충격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공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EU의 산업 전략 개념
- EU의 역내 생산 강화 기조는 EU 외부 공급업체 및 제조사에 대한 접근성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전체 항생제 원료약품의 80% 이상을 아시아에서 조달하는 현재 구조가 점진적으로 재편됨에 따라 EU 역외 제약·바이오 기업의 유럽 시장 접근 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중장기적으로 RAMP UP은 △모듈형 원료약품 생산 시설 △이동식 충전·완성(Fill-Finish)**** 시스템 △디지털 제조 네트워크 등 유연하고 신속하게 확장 가능한 제조 기술에 대한 EU 역내 투자를 가속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글로벌 의료 대응수단 제조 생태계의 구조적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분석됨
**** 원료의약품을 최종 완제의약품 형태로 충전·포장하는 의약품 생산의 마지막 공정 단계
- 유럽 CDMO는 2025년 FDA 승인 의약품 위탁생산 수주에서 미국 대비 3배 이상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수주가 역대 최고치에 달했으며, 이는 RAMP UP을 통한 EU 역내 생산 네트워크 강화 기조와 맞물려 글로벌 의료 대응수단 공급망의 중심이 유럽으로 이동하는 구조적 전환의 신호로 평가됨

| RAMP UP이 EU 제약·바이오 제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야	주요 내용	시사점
CDMO 시장 확대	유럽 CDMO 글로벌 수주 우위 심화	EU 역내 제조 역량 집중 가속화
소규모 기업 참여 확대	스타트업·중소 제조사 매칭 인센티브 설계	혁신 기업의 보건 위기 대응 참여 저변 확대
핵심의약품법 연계	2026년 5월 CMA 채택으로 역내 생산 법적 의무화	RAMP UP의 법적 이행 기반 강화
전략적 자율성 강화	항생제 원료약품 등 역외 의존 구조 점진적 재편	EU 역외 기업의 유럽 시장 접근 환경 변화
제조 기술 투자 확대	모듈형 시설·디지털 제조 네트워크 투자 가속화	글로벌 의료 대응수단 제조 생태계 구조 전환

[자료] EU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Fierce Pharma, Pharmaceutical Technology, European Commission

4 RAMP UP 파일럿 단계의 과제와 한국 보건 안보 체계에 대한 시사점

RAMP UP 파일럿 단계의 실효성 과제

- RAMP UP은 현재 파일럿 단계로 운영 중이며 의약품 분야에만 우선 집중하고 있어 △의료기기 △체외진단기기 (In Vitro Diagnostics, IVD) △PPE 등으로의 확대는 파일럿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유 데이터 범위 △템플릿 △정보 공유 절차를 아직 정립 중인 초기 단계에 해당함
- RAMP UP은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므로 위기 상황에서 참여 기업이 실제로 생산을 확대할 의무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생산 역량 정보 공유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간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참여 기업의 신뢰도 확보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음
- 파일럿에서 정식 출범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데이터 공유 체계의 비례성 확보 △행정 부담 최소화 △EMA 및 MSSG와의 중복 방지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특히 소규모 바이오텍과 CDMO의 실질적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한국 보건 안보 체계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 방향

- 한국 CDMO 시장은 2024년 기준 58억 1,000만 달러(한화 8조 8,726억 원) 규모로 203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5.20%가 전망되며, 생물보안법(Biologically Secure Supply Chain Act, BIOSECURE Act)* 시행으로 중국 CDMO 의존도를 줄이려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국을 대체 생산 거점으로 주목하고 있음
* 2024년 말 미국이 서명한 법률로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여 글로벌 제약사의 생산 거점 다변화를 촉진하고 있음
- 한국은 CDMO 규제지원법을 통해 ①바이오의약품 수출 전문 제조업 등록 제도 신설 ②CDMO 시설 기준 마련 ③우수약품 제조·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인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과 EU 보건 안보 협력 채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국내 보건 위기 대응 의료 대응수단 제조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RAMP UP의 설계 원리인 △평시 생산 역량 정보 공유 △위기 시 신속 조달 계약 △참여자 간 매칭 인센티브를 벤치마킹한 국내 유사 체계 도입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한국의 보건 안보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의료 대응수단 공급망 내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제고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출처] PMC, 2021.10.28.;PMC, 2022.09.17.;European Commission, 2023.;European Commission, 2023.11.23.; European Parliament, 2025.;European Commission, 2025.02.28.;European Commission, 2025.07.09.;Towards Healthcare, 2025.10.01.; Pharmacia, 2025.10.14.;Market Data Forecast, 2025.11.14.;HERA Stakeholders Hub, 2026.;Korea BioMed, 2026.01.02.;HaDEA, 2026.01.13.; Health Policy Watch, 2026.01.22.;Vision Life Sciences, 2026.02.28.;EU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2026.04.10.; Pharma Focus Europe, 2026.04.13.;Expert Market Research, 2026.05.06.;Fierce Pharma, 2026.05.12.;Pharmaceutical Technology, 2026.05.26.; Laboratorios Rubio. 2026.06.20.;European Commission. 2026.07.02.



미국, 2028년부터 제네릭의약품에 최대 100% 관세 부과 예정

U.S. to impose up to 100% tariff on generic drugs starting 2028

- 미국이 제네릭의약품(Generic Drug) 생산 시설을 자국 내로 이전시키기 위해 2028년 8월부터 수입 제네릭의약품에 100% 관세를, 2029년부터는 20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함
-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8월 1일부터 2년간 관세를 0%로 유지한 뒤 2028년부터 100%, 2029년부터 2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 우려에 따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 미국 대통령이 수입품으로 인해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 수입 제한이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강력한 보호무역 수단
- 이번 조치는 자국 내 제약 생산 확대 및 약가 인하를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의 연장선으로, 제네릭의약품 업계의 생산 이전 여부에 따라 향후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재편 및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POLITICO, 2026.07.21.;The Hill, 2026.07.22.]



브라질, 미국 관세에 대응해 제약 특허권 정지 검토

Brazil considers freezing pharma patent rights in response to U.S. tariffs

-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7월 22일부터 브라질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브라질 정부는 이에 대응해 미국 제약 및 농업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 보호 정지를 검토하고 있음
- 브라질은 해당 조치의 법적 근거로 경제상호주의법(Economic Reciprocity Act)*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점에 발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 타국의 일방적인 통상 압박이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오랜 승인 절차 없이도 브라질 정부가 선택적·독자적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법률
- 이번 사안은 양국 간 통상 갈등이 기존 상품 교역을 넘어 지식재산권 및 서비스 무역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실제 특허 정지가 시행될 경우 미국 제약사의 브라질 내 의약품 독점권 및 글로벌 제약 시장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분석됨

[U.S. News & World Report, 2026.07.16.;msn, 2026.07.17.]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무역정책 청문회에서 해외 의약품 가격통제 문제 제기

U.S. Senate Finance Committee raises concerns over foreign drug price controls at trade policy hearing

- 7월 22일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열린 무역정책 청문회에서 상원 재무위원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상대로 국내 제조업 생산 기반 재건, 공급망 안보 강화와 함께 해외 의약품 가격통제 문제를 주요 협상 현안으로 언급함
- 위원장은 미국이 해외 정부와 의약품 가격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각국의 의약품 가격통제 정책이 미국 제약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 이는 해외 약가 정책을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미국 정부의 기조가 의회 차원에서도 지지 받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미국의 대외 약가 협상이 각국의 의약품 가격 결정 체계 및 공공 의료재정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Senate Finance Committee, 2026.07.22.;Ag Bull Trading, 2026.07.22.]



미국 국방보건국, 군 필수약품 공급망 진단을 위해 액센추어와 단독 계약

U.S. Defense Health Agency awards sole-source contract to Accenture for military drug supply chain assessment

- 미국 국방보건국(Defense Health Agency, DHA)이 군 전투 필수약품 25종의 원료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s)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컨설팅 기업 액센추어 페더럴 서비스(Accenture Federal Services)와 국내 생산 전환 타당성 검토를 위한 단독 계약을 체결함
- 미국 전쟁부(Department of War)는 필수 치료제 원료의 공급망 파악 부족을 심각한 위험 요소로 규정하였으며, 액센추어는 10주간 원료약품(APIs) 국내 생산 전환 제안서의 실현 가능성 및 비용을 검토해 각 제안에 대한 △추진 △보류 △중단 여부를 권고할 예정임
-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군사 안보 차원에서도 의약품 원료의 해외 의존도를 핵심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국방 분야를 넘어 민간 의약품 공급망의 국내 회귀 정책 및 공급망 안보 강화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DefenseScoop, 2026.07.17.;ExecutiveBiz, 2026.07.20.]



이스라엘, 2025년 수출 사상 최고 1,690억 달러 ... 제약 등 산업 전반 성장

Israel's 2025 exports hit record \$169 billion, driven by growth across tech and pharma sectors

- 이스라엘 중앙통계사무국(Central Bureau of Statistics, CBS)에 따르면 지정학적 긴장과 국제 보이콧(Boycott) 압박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2025년 수출액이 1,690억 달러(한화 258조 1,137억 원)로 2022년 기록을 경신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이번 실적은 △AI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등 첨단기술 부문이 견인한 가운데 △제약 △첨단 제조 △화학 △정밀공학 부문도 함께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이스라엘은 유럽 시장의 수요 둔화 속에서 △인도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하며 교역 다변화를 이어감
- 이는 대외 여건 속에서도 제약을 포함한 이스라엘 산업 기반의 회복력과 수출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이스라엘 바이오·제약 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The Jerusalem Post, 2026.07.21.;i24NEWS, 2026.07.23.]



우즈베키스탄-아프가니스탄, 제약 협력 이행계획 채택 ... 교역 5억 달러 목표

Uzbekistan and Afghanistan adopt roadmap for pharma cooperation, aiming for \$500 million trade

- 우즈베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우즈베키스탄-아프가니스탄 비즈니스 포럼(Uzbekistan-Afghanistan Business Forum)'에서 양국 간 제약 협력 확대를 위한 이행계획에 서명함
- 양국은 앞선 4월 카불(Kabul) 회담에서 제약 교역 규모를 5억 달러(한화 7,636억 원)로 확대한다는 장기 목표를 세운 바 있으며, 이번 포럼에서는 기업 간(B2B) 및 정부-기업 간(G2B) 회의를 진행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제약 산업단지인 바이오파마 시티(BioPharma City) 생산시설을 현장 방문함
-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 제약 생산 거점으로서 인접국과의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는 조치로, 향후 규제 협력이 진전될 경우 아프가니스탄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Daryo, 2026.07.22.;DID PRESS AGENCY, 2026.07.25.]



파키스탄-중국, 14억 달러 규모 제약·백신 생산 협력 협약 체결

Pakistan and China sign \$1.4 billion pharma and vaccine manufacturing agreements

- 파키스탄과 중국이 7월 17일~18일 개최된 '파키스탄-중국 비즈니스 콘퍼런스(Pakistan-China Business Conference)'에서 △제약 △백신 △의료기기 △헬스케어 기술 및 산업 제조 분야에 걸쳐 총 14억 달러(한화 2조 1,382억 원) 규모의 투자·사업 협약을 체결함
- 콘퍼런스 마지막 날에만 약 8억 5,000만 달러(한화 1조 2,982억 원) 규모의 협약 42건이 체결되었고, 주요 협약으로는 파키스탄 현지에서 △의약품 △백신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방안이 포함됨
- 파키스탄 보건부는 이번 협약으로 △백신 △원료의약품(APIs) △의료기기의 현지 생산이 가능해져 수입 의존도 완화 및 의약품 생산 단가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 평가하였으며, 이는 중국이 남아시아 국가의 제약 자립을 지원하는 사례로서 향후 개발도상국의 의약품 생산 역량 강화 및 지역 보건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The News, 2026.07.19.; Profit by Pakistan Today, 2026.07.20.]



미국, 강제노동 방치한 60개국에 최대 12.5% 관세 부과

U.S. imposes up to 12.5% tariffs on 60 economies over failure to curb forced labor imports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7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60개국에 최소 10%에서 최대 12.5%의 관세를 최종 부과함
- 이번 조치는 2026년 3월 개시된 조사와 공청회, 2,100건 이상의 의견 수렴 및 45개국 이상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이행했거나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이를 약속한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 △멕시코 △영국 등 17개국에는 10%, △EU △대만 △일본 △한국 △스위스는 품목에 따라 10%~12.5%, 나머지 국가에는 일괄 12.5%의 관세율이 적용됨
-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이자 무역 왜곡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국내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 원자재 등에는 예외를 적용해 자국 내 산업 및 공급망에 미치는 부담은 완화하고자 함

[USTR, 2026.07.23.; C.H. Robinson, 2026.07.24.]



인도 제약업계, 미국 제네릭의약품 관세 발표에 파트너십 강화로 대응

Indian pharma industry seeks stronger U.S. partnership after Trump announces 100% tariff on generic drugs

- 미국이 2026년 8월부터 2년간 제네릭의약품에 무관세를 유지한 뒤 2028년 100%, 2029년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인도 제약업계가 미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모색하고 나섬
- 인도 제약연합(Indian Pharmaceutical Alliance, IPA)은 인도 제약사들이 미국 내 40여 개 생산시설을 운영하며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왔다고 강조하였으며, 글로벌무역연구소(Global Trade Research Initiative, GTRI)에 따르면 인도는 2025년 258억 달러(한화 39조 3,043억 원) 규모의 의약품을 수출하였고 이 중 37.7%가 미국으로 수출되었으며, 미국 내 제네릭의약품의 47%가 인도산인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인도산 제네릭의약품이 브랜드 의약품보다 7배~10배 저렴해 관세 부과 후에도 가격 경쟁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추가 비용의 상당 부분이 미국 △의료제공사 △보험사 △환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인도 수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언급함

[Fortune India, 2026.07.22.; Business Standard, 2026.07.22.]

01 오레이카, 오픈소스 AI 신약 발굴 엔진 '오픈DDE' 공개

- 미국 AI 신약 개발 기업 오레이카(Aureka)가 6억 5,500만 개 매개변수(Parameter)를 갖춘 오픈소스(Open-Source)* AI 신약 발굴 기반 모델 '오픈DDE(Open Drug Discovery Engine)'를 공개했으며, △소분자 리간드(Small-Molecule Ligand)** △단백질 △핵산 등 생체분자 간 상호작용을 원자 단위로 시뮬레이션하는 구조 예측 기술을 △학계 △스타트업 △다국적 기업에 무료로 제공함



*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누구나 무료로 △사용 △수정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방식

** 단백질·효소 등 생체분자의 특정 결합 부위에 결합해 생물학적 반응을 유발하는 소분자 화합물

- 현재 △미국 AI 신약 개발 기업 인실리코 메디슨(Insilico Medicine)의 파마.AI(Pharma.AI) △영국 AI 구조 예측 기업 아이소모픽 랩스(Isomorphic Labs)의 아이소DDE(IsoDDE) △미국 AI 신약 개발 기업 리커전(Recursion)의 볼츠-2.1(Boltz-2.1) 등 대다수 신약 발굴 AI가 폐쇄 소스(Closed-Source) 유료 모델로 제공되고 있어 오레이카는 오픈DDE를 통해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오픈DDE는 현재 △구조 예측 △항체-항원 공동 접힘(Antibody-Antigen Co-Folding)*** △신약 발굴 연구를 지원하며, 향후 △드 노보(De Novo)**** 신약 분자 설계 등을 추가할 예정임

*** 항체와 항원이 결합하는 3D 구조를 AI로 예측하는 기술로, 항체 신약 개발의 핵심 단계

**** 기존 분자 구조를 참고하지 않고 AI가 처음부터 새로운 약물 분자를 설계하는 방식

- 오레이카는 오픈DDE를 자체 고처리량 자동화 습식 실험실(Wet Lab)*****과 연결해 AI 분석과 실험 검증을 통합하는 폐쇄 루프(Closed-Loop) 신약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자체 치료제 후보물질 파이프라인도 확보해 나가고 있음

***** 컴퓨터 기반 AI 분석 결과를 실제 생물학 실험으로 검증하는 물리적 실험실

- 오픈DDE 공개는 고비용의 폐쇄 소스 AI가 주도하던 신약 발굴 분야에 오픈소스 기반 생체 분자 모델링 접근법이 등장한 첫 사례로, AI 신약 발굴 기술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MedPath, 2026.07.07.; Pharmaphorum, 2026.07.08.]

02 마인드빔 AI, 생성형 AI로 아세트아미노펜 대체 진통제 후보물질 3종 발굴

- 미국 AI 인프라 스타트업 마인드빔 AI(Mindbeam AI)가 △생성형 AI(Generative AI) △계산 모델링(Computational Modeling)* △가상 스크리닝(Virtual Screening)**을 결합해 기존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보다 안전한 대체 후보물질 3종을 발굴했으며, 이 중 1종이 임상 개발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질로 평가되었다고 발표함

*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자의 △구조 △반응 △독성을 예측하는 방법론

** 방대한 분자 라이브러리에서 특정 표적에 결합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물질을 컴퓨터로 걸러내는 과정

- 아세트아미노펜은 미국에서 주당 6,000만 명 이상이 복용하고 수백 종의 복합 제품에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초과 복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특히 간 질환자나 하루 3잔 이상 음주자는 심각한 간 손상 위험에 노출됨

- 이에 마인드빔은 △통증 △열 △염증 신호에 관여하는 수용체 TRPV1(Transient Receptor Potential Vanilloid 1)***을 표적으로 설정했으며, 사전 학습된 트랜스포머(Transformer) 모델에 기존 화합물 구조 정보를 입력해 새로운 분자 구조를 생성한 후 유효성·독성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물질을 선별함

*** 캡사이신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통증 △온도 △염증 신호 수용체로, 진통제 개발의 유망 표적이지만 임상 적용이 어려웠던 분야

- AI 기반 신약 발굴이 실질적인 미충족 임상 수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가운데, 기존 진통제의 안전성 한계를 극복하는 신규 약물 개발에서 AI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Yahoo Finance, 2026.07.09.; SiliconAngle, 2026.07.09.]

03 토론토대학 연구팀, AI 기반 의약품 부족 조기 경보 플랫폼 ‘마트릭스’ 개발

- 캐나다 토론토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 연구팀이 향후 1년 내 부족이 예상되는 의약품을 사전에 예측하는 AI 기반 조기 경보 플랫폼 ‘마트릭스(MaaTRx)’를 개발했으며, 실제로 항암제 시클로포스파마이드(Cyclophosphamide)* 부족을 사전 감지하는 데 성공해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했음
- * 다양한 암 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암제로, 부족 시 치료 지연 및 대체요법 전환 등 심각한 임상 문제를 유발함
- 마트릭스는 △캐나다 의약품 부족 데이터베이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필수약품 목록 △시장 집중도·제조업체 수·특허 만료 현황 등 공급망 취약성 지표를 통합 분석해 부족 위험이 높은 의약품을 최대 1년 전부터 식별하며, 의료 공급망 관계자에게 선제적 경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캐나다에서는 연간 평균 약 2,000건의 의약품 부족이 보고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300개 이상의 의약품이 부족한 상태로, 필수약품 부족이 치료 지연 및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음
- 연구팀은 마트릭스를 캐나다 규제 기관 및 병원 약국 시스템과 통합해 공급망 취약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병원이 대체 의약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의약품 부족이 글로벌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위협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AI 기반 예측 플랫폼이 사후 대응에 머물던 공급망 관리를 선제적 위기 예방 체계로 전환하는 핵심 도구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줌

[Medscape, 2026.07.08.;CTV News, 2026.07.09.]

04 NCS, 연간 AI 포럼서 헬스케어 포함 산업별 AI 파트너십 및 기업용 AI 플랫폼 확대 발표

- 싱가포르 AI 기술 서비스 기업 NCS(National Computer Systems)는 연례 기술 포럼 ‘NCS AI 임팩트 2026(NCS AI Impact 2026)’에서 기업용 AI 플랫폼 ‘선샤인.AI(Sunshine.AI)*’를 확대하고 △헬스케어 △교통 △교육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기업 전사 차원의 AI 전환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힘
- * 기업 내부 환경에서 데이터를 유지하면서 AI를 배포할 수 있는 보안 및 거버넌스 내장형 기업용 AI 플랫폼 제품군
-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말레이시아 민간 의료그룹 IHH 헬스케어(IHH Healthcare)와 AI 우수 센터(AI Centre of Excellence)를 설립해 AI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으며, 싱가포르 국가보건그룹(National Healthcare Group, NHG)과는 △생체 인식(Biometric) △디지털 병리 △인사 업무 전환 등 파일럿 영역에 에이전트 AI(Agentic AI)를 배포하기로 합의했음
- 피지컬 AI(Physical AI)** 및 헬스테크(Healthtech) 분야에서는 ①글로벌 재활 기술 기업 푸리에 리햄(Fourier Rehab)과 의료용 외골격(Medical Exoskeleton)*** 배치 협력 ②싱가포르 의료 IT 기업 아이메드웨이(iMedWay)와 디지털 솔루션 제공 협력 ③중국 헬스케어 AI 기업 링크닥(LinkDoc)과 AI 기반 임상시험 혁신 협력을 각각 체결해 의료 분야 AI 생태계를 확장했음
- ** 로봇 및 자율주행 등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AI 기술
- *** 근육 기능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착용형 로봇 장치로, 뇌졸중 및 척수 손상 환자의 재활 치료에 활용됨
- NCS는 100개 이상의 AI 프로젝트 경험을 담은 ‘NCS AI 플레이북(NCS AI Playbook)’도 발간했으며, AI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①비용 절감(Cheaper) ②품질 향상(Better) ③속도 개선(Faster) ④안전성 강화(Safer) 4개 실행 원칙을 제시했음
- NCS의 이번 발표는 AI 기술이 개념 검증 단계를 넘어 △의료 △교육 △교통 등 실제 산업 현장에 통합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용 AI 생태계 구축 경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05 비즈.AI-존슨앤드존슨, AI 경막하 출혈 솔루션 ‘비즈 서브듀럴’ 상용화 협력 체결

- 미국 임상 AI 기업 비즈.AI(Viz.ai)가 미국 의료기기 기업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과 경막하 출혈(Subdural Hemorrhage)* AI 소프트웨어 솔루션 ‘비즈 서브듀럴(Viz Subdural)’의 미국 병원 확산을 위한 전략적 상용화 협력을 체결했으며, 만성 경막하 혈종(Chronic Subdural Hematoma, cSDH)** 환자 식별과 치료 연계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뇌와 두개골 사이 경막 아래 공간에 혈액이 고이는 상태로, 방치 시 신경 기능 저하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경막하 공간에 혈액이 천천히 축적되어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 고령 인구에서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임

- 비즈 서브듀럴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알고리즘으로 경막하 출혈을 자동으로 △탐지 △분류 △정량화하며, AI 기반 차트 요약 도구 ‘비즈 어시스트(Viz Assist)***’가 환자의 △병력 △복용 약물 △과거 기록을 자동으로 정리해 임상이가 영상 소견을 파악하고 진료 연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

*** 환자 차트를 시로 자동 요약해 임상가의 수동 기록 검토 부담을 줄이고 임상 의사결정을 가속화하는 비즈.AI 플랫폼 내 도구

- 이번 협력은 cSDH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뇌막 동맥 색전술(Middle Meningeal Artery Embolization, MMA Embolization)****이 적합한 환자를 보다 신뢰성 있게 선별해 다학제 진료 협력을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비즈.AI 플랫폼은 현재 미국 2,000개 병원에 배포되어 있음

**** 뇌를 감싸는 경막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뇌막 동맥을 색전술로 차단해 만성 경막하 혈종의 재발을 줄이는 최소 침습적 시술

-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로부터 AI 분야 최초로 급여 인정을 받은 비즈.AI는 이번 협력을 통해 cSDH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더욱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Healthcare Technology Report, 2026.05.18.:MPO Magazine, 2026.07.09.]

06 IDC, AI·웨어러블 결합으로 반응형 의료에서 예방형 의료로의 전환 가속화 전망

- 미국 시장조사기관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가 AI와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의 결합이 의료 시스템을 반응형(Reactive)에서 예방형(Preventive)으로 전환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IDC의 ‘전 세계 분기별 웨어러블 기기 트래커(Worldwide Quarterly Wearable Device Tracker)*’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스마트워치(Smart Watch) 판매량은 1억 6,400만 대에 달했음

* IDC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전 세계 웨어러블 기기 시장 △출하량 △점유율 △성장률 분석 보고서

-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감염병도 증상 발현 하루 전부터 체온 상승 및 수면 패턴 변화 등 전조 신호가 나타나며, AI가 수백만 명의 웨어러블 데이터를 분석해 잡음(Noise)과 실제 이상 신호를 구분하면 위양성(False Positive)과 위음성(False Negative)을 크게 줄여 조기 감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과 같은 만성 질환의 경우 증상 발현 10년 이상 전부터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 수면(Slow-Wave Sleep)** 패턴에서 변화가 감지된다는 연구가 축적되고 있으며, 애플 워치(Apple Watch)는 2022년부터 수면 단계 추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향후 스마트워치를 통한 알츠하이머 조기 감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수면 중 뇌가 알츠하이머의 원인 단백질 등 대사 노폐물을 청소하는 깊은 수면 단계로, 이 단계의 교란이 신경 퇴행성 질환과 연관됨

- IDC는 웨어러블 기기와 AI 기반 의료 통합의 주요 과제로 △개인 건강 데이터 보안·프라이버시 우려 △데이터 정확성 및 AI 오류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센서 품질과 AI 신뢰성 모두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 이러한 장벽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음

- 이처럼 AI와 웨어러블의 결합이 의료 현장에 깊이 통합될수록 기존의 응급 중심 및 단편적 진단 체계에서 개인별 건강 데이터에 기반한 지속적 예방 의료 체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을 보여줌

[IDC, 2026.07.07.:InfoTech Lead, 2026.07.09.]

07 사노피, AI 전사 도입 전략으로 신약 발굴·제조·환자 지원 전 과정 혁신 추진

-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Sanofi)가 2026년 비바테크(VivaTech) 행사에서 AI를 전사적으로 도입해 신약 발굴부터 임상시험 △제조 △공급망 △환자 지원까지 의약품 개발 전 주기를 혁신하는 전략을 공개했으며, 최고디지털책임자(Chief Digital Officer, CDO)는 'AI는 자동화가 아니라 재발명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 비바테크 현장에서는 아토피피부염(Atopic Dermatitis) 환자의 치료 여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환자 경험 터널(Patient Experience Tunnel)'을 선보였으며, AI 문헌 검토 도구는 95% 이상의 정확도로 평가 시간을 크게 단축했고 면역질환 환자와 의료진을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 'IMMS'도 함께 공개됐음
- 사노피는 3단계 AI 전략*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R&D 분야에서는 △다중 모달 데이터로 임상시험을 시뮬레이션하는 'eStudy' 플랫폼 △임상 데이터로 안전성·유효성을 예측하는 모델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 'FUSION' △AI 기반 임상 결과 검토 도구 'ClinShow' 등을 활용해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있음
- * ①간단한 작업용 소형 AI(Snackable) ②특정 업무 전문 AI(Specialized) ③생성형 AI(Generative) 3가지 유형을 용도에 맞게 조합하는 사노피의 계층별 AI 운영 전략
- 사노피는 내부 AI 개발 플랫폼 'AI 파운드리(AI Foundry)**'와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RAISE (Responsible AI at Sanofi for Everyone)***'를 통해 책임 있는 AI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직원용 AI 동반자 'Concierge'와 에너지 최적화 도구 'ETaOne'도 운영 중임
- ** 사노피 임직원이 AI 솔루션을 신속하게 구축 △테스트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노피 자체 AI 개발 플랫폼
- *** ①책임성 ②안전성 ③공정성 ④투명성 ⑤친환경성 5개 원칙으로 구성된 사노피의 AI 거버넌스 체계
- 사노피의 사례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AI를 △R&D △제조 △상업화 전 과정에 통합하는 핵심 운영 인프라로 내재화하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됨

[Pharm Exec. 2026.07.08.; Healthcare Digital, 2026.07.10.]

08 글로벌 헬스케어 생성형 AI 시장, 2033년 306억 8,000만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인도 시장조사기관 데이터엠 인텔리전스(DataM Intelligence)의 '헬스케어 생성형 AI 시장 보고서 (Generative AI in Healthcare Market Report)'에 따르면 글로벌 헬스케어 생성형 AI 시장은 2024년 29억 2,000만 달러(한화 4조 4,597억 원)에서 2033년 306억 8,000만 달러(한화 46조 8,437억 원)로 성장할 전망이며, 2025년~2033년 연평균 성장률은 35.1%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시장 내 주요 기업으로는 △미국 IT 기업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미국 빅테크 (Bigtech)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및 구글(Google) △미국 AI 기업 오픈AI(OpenAI) △미국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 등이 있으며, 2026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드래곤 코파일럿(Dragon Copilot) 고도화와 엔비디아의 바이오네모(BioNeMo) 플랫폼 확장이 두드러졌음
- 지역별로는 북미가 42% 점유율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①유럽(28%) ②아시아태평양(25%) ③라틴아메리카(3%) ④중동·아프리카(2%) 순으로 나타났으며, 헬스케어 AI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임상 △행정 △생명과학 워크플로 전반에 걸쳐 AI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성장의 핵심 과제로 지목됨
- 헬스케어 생성형 AI 시장은 소규모 파일럿 단계를 넘어 △임상 문서화 △환자 참여 △신약 발굴 등 실제 워크플로에 본격 통합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AI 모델 역량뿐 아니라 △거버넌스 △데이터 보안 △규제 준수 역량이 시장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줌

[OpenPR. 2026.07.09.; DataM Intelligence, 2026.07.14.]

09 캐나다 신약 발굴 아웃소싱 시장, AI 통합 및 학계 협력 확대로 성장세 가속화

- 아일랜드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츠(ResearchAndMarkets)의 ‘캐나다 신약 발굴 아웃소싱 시장(Drug Discovery Outsourcing Market in Canada)’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신약 발굴 아웃소싱(Drug Discovery Outsourcing)* 시장은 2031년까지 61억 달러(한화 9조 3,165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캐나다 시장도 이 기간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

* 제약사가 신약 발굴 과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전문 임상시험수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활용됨

- 캐나다 신약 발굴 아웃소싱 시장의 주요 성장 동인으로는 △AI·머신러닝(Machine Learning, ML) 기반 데이터 분석 고도화 △종양학·면역학 등 틈새 치료 분야로의 특화 △CRO·학계·제약사 간 협력 모델 확산 △헬스 캐나다(Health Canada)**의 규제 절차 간소화 등이 꼽히며, 소분자(Small Molecule) 의약품이 경구 투여 가능성과 세포 내 표적 접근 용이성 등의 장점으로 여전히 시장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캐나다의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안전을 규제하는 캐나다 연방 정부 산하 보건 규제 기관

- 또한, AI 기반 플랫폼이 신약 발굴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핵심 도구로 자리잡고 있으며 △캐나다 주요 학술기관과의 연구 협력 강화 △바이오의약품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포트폴리오 다각화 △개인 맞춤형 의약품 발굴 서비스 확대가 시장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부상하고 있음
- 시장 확대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규제 복잡성 △데이터 보안 우려 △조직 간 소통 문제가 지목됐으며, 제약사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 아웃소싱과 내부 역량 강화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 캐나다 신약 발굴 아웃소싱 시장의 변화는 캐나다가 글로벌 제약 연구 서비스 허브로 입지를 강화하는 흐름을 보여주며, 향후 아웃소싱이 신약 개발 가속화의 핵심 전략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GlobeNewswire, 2026.07.06.;Supply Chain Digital, 2026.07.06.]

10 베링거 인겔하임,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자스케이드’ 영국 MHRA 승인 획득

- 독일 제약사 베링거 인겔하임(Boehringer Ingelheim)의 신규 폐섬유증(Pulmonary Fibrosis) 치료제 ‘자스케이드(Jascayd)*’가 영국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으로부터 성인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 및 진행성 폐섬유증(Progressive Pulmonary Fibrosis, PPF) 치료 적응증으로 승인을 획득했으며, 유럽 지역 내 첫 번째 승인 사례로 기록됨



* 네라도밀라스트(Nerandomilast) 성분의 경구 폐섬유증 치료제

- 자스케이드는 포스포디에스테라제 4B(Phosphodiesterase 4B, PDE4B)** 억제 기전을 통해 △항섬유화 △면역 조절 △혈관 효과를 동시에 발휘하는 혁신신약(First-in-Class) 경구 치료제로, 1일 2회 18mg 정제를 복용하는 방식이며 기존 치료제와 달리 메스꺼움 및 설사 등 소화기계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 중단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계됨

** 세포 내 염증 및 섬유화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효소로, 이를 억제하면 폐 섬유화 진행을 늦출 수 있음

- 또한, 이미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한 바 있으며 현재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가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급여 적용을 위한 비용 효과성 평가를 진행 중으로 2026년 9월 결과 발표가 예정됨
- 이번 승인은 치료 옵션이 극히 제한됐던 IPF 분야에서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가 임상적 효과를 입증하며 유럽 첫 허가를 획득한 사례로, 폐섬유증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여겨짐

[GOV.UK, 2026.07.08.;Pharmaphorum, 2026.07.09.]

11 노보 노디스크, 세계 최초 주 1회 기저 인슐린 ‘아위클리’ 인도 시장 출시

-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가 세계 최초 주 1회 기저 인슐린(Basal Insulin) ‘아위클리(Awiqli)’를 인도 시장에 출시했으며, 인도는 미국과 EU 등에 이어 아위클리가 출시된 일곱 번째 시장으로 기록됨

* 인슐린 이코덱(Insulin Icodec) 성분의 주 1회 투여 장기 작용형 인슐린



- 인도는 현재 당뇨병 환자 1억 100만 명 및 당뇨 전단계(Prediabetes)** 환자 1억 3,600만 명을 보유한 세계 최대 당뇨 부담 국가 중 하나로, 임상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주사 공포 △치료 복잡성 △비용 우려 등으로 인슐린 치료 시작이 평균 7년~9년 지연되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으나 당뇨병으로 진단될 만큼 높지 않은 상태로, 방치 시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음

- 아위클리는 인도에서 1주일치 용량 기준 261루피(한화 4,200원)에 책정됐으며, 기존 1일 1회 투여 기저 인슐린 제품의 345~453루피(한화 5,554~7,289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시돼 가격 경쟁력도 갖췄음
- 인도 인슐린 시장은 2025년 6억 6,050만 달러(한화 1조 81억 원)에서 2034년 9억 1,640만 달러(한화 1조 3,991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인도 내 인슐린 치료를 받는 600만 명이 향후 9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아위클리 출시는 주사 횟수를 줄여 인슐린 치료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노보 노디스크의 전략으로, 인도의 방대한 당뇨 부담과 맞물려 당뇨 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Reuters, 2026.07.09.; Economic Times, 2026.07.09.]

12 서던캘리포니아대학 연구팀, 위고비 심혈관 적응증 확대 후 메디케어 처방 급증 확인

-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새퍼 보건정책경제센터(Schaeffer Center for Health Policy & Economics)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의 위고비(Wegovy)에 심혈관 위험 감소 적응증을 추가 승인한 이후 미국 공공 의료보험 메디케어(Medicare)*의 위고비 처방 청구건이 6개월간 598% 급증했으며, 전체 보험 유형을 합산한 처방 증가율은 136%로 나타남

* 미국 65세 이상 노인과 일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의료보험 제도

- 메디케어는 기존에 GLP-1 수용체 작용제(GLP-1 Receptor Agonist)**를 제2형 당뇨 치료 목적으로만 급여 적용했으나, 위고비의 심혈관 적응증 추가 승인에 따라 비만 환자의 심장 질환 위험 감소 목적으로도 급여를 허용하는 정책 변화가 처방 급증을 이끌었음

** 식후 분비되는 천연 호르몬 GLP-1의 작용을 모방해 포만감을 높이고 식욕을 줄이는 기전의 약물군

- 다만 비만과 심혈관 질환을 모두 보유한 메디케어 수혜자 약 360만 명 중 실제 처방을 받은 환자는 소수에 그쳤으며, △처방 제한 △높은 본인 부담 비용 △의료진 인식 부족 등이 확산의 문제점으로 지목됨
- 메디케어는 체중 감량 목적의 위고비 처방 접근성 확대를 위해 ‘메디케어 GLP-1 브릿지 파일럿 프로그램(Medicare GLP-1 Bridge Pilot Program)***’을 운영 중이나, 연방 재정 지원이 2027년까지로 제한되어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체중 감량 목적의 GLP-1 계열 의약품에 대한 메디케어 급여를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 FDA 적응증 확대가 처방 접근성을 강력히 끌어올리는 효과가 확인된 만큼, 재정 및 규제 장벽 해소를 위한 △정책 △보험 △처방 체계의 통합적 개선이 GLP-1 계열 치료제의 실질적 보급 확대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이 주목됨

[Bioengineer.ora, 2026.07.09.; USC Mann, 2026.07.09.]

13 NN, 로봇 보조 수술 플랫폼 핵심 부품 공급사 자격 취득 ... 의료기기 사업 성장 가속화

- 미국 정밀 부품 제조 기업 NN이 미국 미시간(Michigan) 공장의 전면 시설 품질 감사(Full-facility Audit)*를 통과하며 로봇 보조 수술(Robotic-Assisted Surgery)** 플랫폼 공급사 자격을 획득했으며, 선도적인 로봇 수술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부터 최초 구매 주문(Purchase Order, PO)을 수령해 의료기기 정밀 부품 즉시 납품을 개시했음

* 의료기기 공급망 진입을 위해 고객사가 제조 시설 전체의 △품질 시스템 △설비 △공정을 직접 점검하는 엄격한 검증 절차

** 의사의 동작을 로봇 팔이 정밀하게 재현해 최소 침습 수술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확대되는 수술 방법

- 이번 로봇 보조 수술 플랫폼 공급 계약으로 NN의 의료기기 신사업 파이프라인은 약 2,500만 달러(한화 381억 원) 증가해 총 7,500만 달러(한화 1,145억 원) 규모에 달했으며, NN 전체 신사업 파이프라인 7억 5,000만 달러(한화 1조 1,455억 원) 중 의료기기 부문의 비중이 더욱 확대되었음
- NN은 의료기기 사업을 ①데이터센터·전력망 ②방산·전자 ③의료기기 ④고부가가치 차량 부품 ⑤고부가가치 스탬핑(Stamping) 제품으로 구성된 '5대 성장 기둥(5 Pillar Growth Program)' 중 하나로 설정했으며, 이번 로봇 보조 수술 분야 진출은 △기존 수술 기구 △정형외과 공구 △전기수술 제품 △봉합 관련 제품 등 기존 의료 사업을 보완하는 전략적 확장임
- 또한, △북·남미 △중국 △유럽에 걸친 글로벌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테인리스강(Stainless Steel) 정밀 가공 전문성과 6 시그마(Six Sigma)*** 품질 시스템을 로봇 보조 수술 부품 공급에 적용함
- *** 제조 공정에서 불량률을 100만 개당 3.4개 이하로 줄이는 초고정밀 품질 관리 기법
- 이번 공급사 자격 취득은 NN이 3년간의 투자와 품질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의료기기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제조 역량을 확보했음을 입증한 성과로, 고성능 로봇 보조 수술 시장에서 정밀 부품 공급사로서의 입지를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전환점으로 여겨짐



[SCI AD, 2026.06.17.; Med-Tech Insights, 2026.07.01.]

14 KKR, 메드테크 정밀 제조 플랫폼 '앨린트라' 출범 ... 프레시파트 기반 플랫폼 확장 추진

- 미국 글로벌 투자 기업 KKR(Kohlberg Kravis Roberts)이 메드테크(Medtech) 정밀 제조 플랫폼 '앨린트라(Allyntra)'를 출범했으며, 2023년 인수한 스위스 정밀 부품 제조 기업 프레시파트(Precipart)를 기반으로 추가 인수와 투자를 통해 플랫폼을 확장할 계획임
- 앨린트라는 △로봇 보조 수술 △최소 침습 수술 △차세대 수술 시스템 등 첨단 수술 분야에 활용되는 고정밀 부품과 조립품의 △설계 △개발 △제조에 집중하며, 의료기기 제조사의 복잡한 제품 개발과 상업화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음
- 또한, △스위스 △영국 △인도에 생산 거점을 보유한 프레시파트의 글로벌 제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①설계 ②제조 ③조립을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음
- KKR의 헬스케어 전략 성장 부문 글로벌 대표는 프레시파트에 대한 투자 경험을 통해 이 기업이 더 광범위한 정밀 엔지니어링 사업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으며, 의료기기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제조 파트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 이번 앨린트라 출범은 사글로벌 투자 기업이 메드테크 정밀 제조 분야에서 플랫폼 구축 전략을 통해 입지를 강화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로봇 수술 및 최소 침습 수술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전문 정밀 제조 역량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Business Wire, 2026.07.09.; CityBiz, 2026.07.09.]

15 페덱스, 헬스케어 물류 전담 조직 ‘페덱스 라이프 사이언스’ 출범

- 미국 물류 기업 페덱스(FedEx)가 △의약품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자재 등 헬스케어 화물의 전문 운송을 전담하는 독립 조직 ‘페덱스 라이프 사이언스(FedEx Life Sciences)’를 출범함 
- 의약품의 고도화 및 글로벌화와 함께 시간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냉장 보관 의약품 △임상시험 자재 △환자 필수 의료기기 등을 취급하는 헬스케어 공급망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며, 페덱스 라이프 사이언스는 이에 대응하는 전문 물류 역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설립되었음
- 페덱스는 헬스케어 물류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왔으며, 2025년 항공화물 의약품 운송 국제 품질 기준인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 CEIV(Center of Excellence for Independent Validators)* 기업 인증을 획득함
 - * 의약품 항공 운송의 △품질 △안전 △규정 준수를 검증하는 국제 인증 제도로, 냉장 보관 의약품의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는 국제 표준
- 페덱스는 머신러닝(ML)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개입 서비스 ‘페덱스 서라운드(FedEx Surround)**’를 통해 △온도 △시간 △신뢰성이 중요한 헬스케어 화물의 잠재적 이상을 사전에 감지하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부문 연간 매출은 약 100억 달러(한화 15조 2,730억 원)에 달함
 - ** 화물의 △위치 △온도 △습도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이상 발생 시 자동으로 개입해 화물을 보호하는 페덱스의 지능형 모니터링 서비스
- 헬스케어 물류가 일반 물류와 구별되는 전문 역량을 요구하는 독립 분야로 자리잡는 가운데, 글로벌 물류 기업들의 헬스케어 공급망 전문화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짐

[FedEx Newsroom, 2026.07.09.;Mexico Business News, 2026.07.14.]

16 GE 헬스케어-메이요 클리닉, 전립선암 방사성리간드 치료 개인 맞춤화 연구 협력 체결

- 미국 의료기기·의료영상 기업 GE 헬스케어(GE HealthCare)와 미국 비영리 의료기관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이 진행성 전립선암(Prostate Cancer) 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성리간드 치료(Radioligand Therapy, RLT)*의 개인 맞춤화를 탐색하는 공동 연구 ‘MI-BET(Molecular Imaging Biomarker-Based End of Therapy Trial)**’을 발표함
 - * 암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해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수행하며, 암세포를 정밀하게 찾아 치료제를 전달하는 방식
 - ** 분자영상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사성리간드 치료 종료 시점을 환자별로 최적화하는 임상 연구
- 현재 전립선암 환자의 RLT는 대부분 표준화된 횟수로 치료를 진행하는 방식인데, MI-BET 연구는 영상 및 바이오마커(Biomarker)*** 데이터를 치료 과정에 통합해 개별 환자의 질환 반응에 따라 치료를 일시 중단하는 적응형 접근을 평가하며 예측 마커(Predictive Marker) 개발도 함께 탐색함
 - *** 혈액 및 영상 등에서 측정되는 생물학적 지표로, 질환의 진행과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데 활용됨
- 연구에는 GE 헬스케어의 단광자방출 컴퓨터 단층촬영(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Computed Tomography, SPECT/CT)**** 시스템 ‘스타가이드(StarGuide)’와 GE 헬스케어 산하 미국 의료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 밌 소프트웨어(MIM Software)의 ‘밌 레전아이디 프로(MIM LesionID Pro)’를 활용해 치료 과정 전반에 걸쳐 종양 반응을 추적하며 영상 데이터와 임상 결과·혈액 기반 바이오마커(Biomarker)를 통합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 방사성 추적자를 이용해 신체 내부의 기능적 변화를 3D 영상으로 구현하는 핵의학 영상 장비
- 방사성의약품 치료가 표준화 방식에서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치료로 진화하면서 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 분야의 임상적 증거 기반이 빠르게 확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됨
 - ***** 진단(Diagnostics)과 치료(Therapeutics)를 결합한 개념으로, 동일한 표적 분자를 이용해 암세포를 영상으로 찾아내고 방사성 치료제를 전달하는 정밀 의학 접근법

[GE HealthCare, 2026.07.08.;MassDevice, 2026.07.09.]

17 중국, 하이난·상하이·선전 중심으로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 확대 추진

- 중국이 △하이난(Hainan) △상하이(Shanghai) △선전(Shenzhen)을 중심으로 특화된 의료관광 거점을 조성하며 글로벌 헬스케어 관광 산업 확대를 추진함
- 하이난에서는 보아오 러청 국제의료관광 시범구역(Boao Lecheng International Medical Tourism Pilot Zone)*이 병원과 호텔 및 레저 시설을 연계해 △건강검진 △재활 치료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함
- * 2013년 중국 국무원 승인으로 하이난성 충하이(Qionghai)시에 설립된 의료관광 특구로, 해외 승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우선 도입 등 특별 정책을 기반으로 글로벌 의료서비스와 웰니스 관광을 결합해 운영되는 시범구
- 상하이와 선전은 외국인 환자 대상 병원과 정밀 진단 및 전문 의료서비스를 개발하며, 공항 등 글로벌 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강화함
- 중국은 △의료 연구 △병원 인프라 △첨단 의료 장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국인 환자 전담 부서와 다국어 지원 체계를 마련함
- △침술 △한방치료 △재활 등을 포함한 전통중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CM)이 예방적 건강관리와 웰니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핵심 요소로 활용됨
- 또한, △규모 △기술력 △의료 전문성 △관광 인프라 등의 강점으로 기존 아시아 의료관광 국가들과 경쟁하며 주변국 관광객 및 해외 거주 교민을 포함한 주변 지역 시장 공략에도 집중함
- 중국은 기존 병원 중심 체계에서 ①치료 ②회복 ③웰니스 ④관광을 결합한 완결형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을 조성함으로써 아시아 의료관광 시장에서 새로운 목적지로 성장하고자 함

[Travel And Tour World, 2026.06.02.; Travel And Tour World, 2026.07.09.]

18 캐나다, 2026년 세계 의료관광 목적지 주요 국가로 주목

- 글로벌 여행전문매체 트래블앤드투어월드(Travel And Tour World, TTW)가 2026년 세계 50대 의료관광 목적지 순위를 발표하며 캐나다가 △중국 △영국 △프랑스 △미국 △이스라엘 △포르투갈과 함께 주요 국가로 소개됨
- 캐나다는 저비용 치료보다 첨단 연구 기반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집중하며 △종양학 △심혈관 치료 △정형외과 △난임 치료 등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함
- 또한, △안전성 △첨단 연구 △질 높은 의료 인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경쟁력 확보 및 헬스 캐나다(Health Canada)의 정책적 지원으로 의료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주요 과제로 추진함
- 중국은 대형 병원 네트워크와 △AI △로봇 수술 △전통중의학(TCM)을 결합한 기술 중심 의료관광 모델로 아시아 주요 허브로 성장함
- 영국은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신뢰도와 전문의, 첨단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종양 △심장 △신경계 질환 등 고난도 치료 분야에서 강점을 보임
- 미국과 이스라엘은 △정밀의료 △로봇 수술 △바이오테크 등 혁신 중심 의료관광을 주도하는 한편, 프랑스와 포르투갈은 웰니스 및 관광 인프라를 결합한 유럽형 의료관광을 확대함



[Travel And Tour World, 2026.07.10.]

19 미국인들, 높은 의료비 부담에 아시아로 의료관광 확대 ... 세대 간 이용 목적 상이

- 미국인들이 자국의 높은 의료비 부담과 복잡한 보험 처리 절차, 긴 진료 대기시간을 이유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기술을 동일하게 보유하고도 비용이 저렴한 아시아 지역으로 의료관광을 확대하고 있음
- 특히, 관상동맥 우회수술(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CABG)*의 경우 미국에서 12만 달러(한화 1억 8,327만 원)이지만 파키스탄과 태국에서는 1만 달러~1만 5,000달러(한화 1,527만 원~2,290만 원) 수준이며, 무릎 및 고관절 치환술도 미국에서는 4만 달러(한화 6,109만 원)에 달하지만 6,000달러~1만 2,000달러(한화 916만 원~1,832만 원)로 크게 낮아짐
- *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처럼 좁아지거나 막힌 관상동맥 때문에 심장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환자의 다른 부위(다리, 팔, 가슴 등)에서 떼어낸 혈관을 이어 붙여 우회 도로를 만들어주는 수술
- 베이비붐 세대는 주로 관절 및 심혈관 질환 등 필수적인 수술을 위해 이동하는 반면,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예방 중심 건강관리 △치과 미용 △피부과 시술 등을 목적으로 이동하며 한국이 해당 수요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있음
- 국가별 접근 방식으로 태국 방콕(Bangkok)의 범룽라드 국제병원(Bumrungrad International Hospital)은 다국어 통역 서비스와 90일 의료비자 등을 통해 편의를 제공하며, 중국은 3급 병원(Grade-3A Hospital)** 인프라 확충으로 대기시간 없는 진단과 종양 치료를 제공함
- ** 중국 본토의 의료기관 평가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대규모 종합병원이자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의료 △연구 △교육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병원
- 다만 해외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구제가 제한적이고 장거리 비행에 따른 혈전증(Thrombosis) 등 위험이 있어 의료기관 인증 여부 확인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함

[Brandsynario, 2026.07.09.;Shafaqna, 2026.07.09.]

20 바틱 에어-국립심장연구소, 말레이시아 의료관광 확대 추진

- 글로벌 항공 그룹 바틱 에어(Batik Air)와 국립심장연구소(Institut Jantung Negara, IJN), 말레이시아 관광청(Tourism Malaysia)이 협력해 예방 목적의 심장 검진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말레이시아의 의료관광 산업을 강화함
- 바틱 에어 국제선 탑승객은 탑승권을 제시하면 IJN의 기본 건강검진 패키지 15% 할인 및 선착순 1,000명 대상 프리미엄 심장검진 패키지 20% 할인 혜택을 받음
- 또한,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는 공식 진료 예약서를 제시하면 바틱 에어 항공권을 10% 할인받아 환자와 동반 가족의 항공 비용 부담 완화가 가능함
- IJN은 바틱 에어의 기업 여행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바틱 에어 직원과 부양가족은 IJN의 웰니스 건강검진 패키지 할인을 받는 등 양사 직원에게도 혜택을 제공함
- 바틱에어 CEO는 2025년 말레이시아가 약 185만 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해 목표치를 초과하는 매출을 기록했다고 소개함
- IJN 그룹 CEO는 이번 협력이 조기 검진과 예방적 관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며, IJN은 지난해 아세안(ASEAN) 정상회의 당시 미국 대통령의 비상시 심장 진료 지정병원(Contingency Cardiac Referral Centre)으로도 선정되었음을 언급함
- 이번 협력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시행되며, 상호 합의에 따라 갱신될 수 있음



[Business Today, 2026.07.10.;The Bangladesh Monitor, 2026.07.16.]

21 태국 관광청, 아로카고를 통해 의료·웰니스 서비스 285개 기관 글로벌 시장과 연계

- 태국 관광청(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TAT)이 지원하는 「태국 헬스 엑셀런스 2026(Thailand Health Excellence 2026)*」이 글로벌 의료관광 플랫폼 아로카고(ArokaGO)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함

* △현대 의학 △과학적 혁신 △전통 태국 테라피 △관광을 융합하여 글로벌 의료 및 웰니스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태국 정부와 관광청이 출범한 종합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캠페인



- 태국의 △의료 △헬스 △웰니스 제공기관 285개 이상이 아로카고 플랫폼에 소개되며, 글로벌 이용자들이 검색 및 비교, 문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함
- 캠페인은 '치유가 곧 새로운 럭셔리(Healing is the New Luxury)'라는 비전 아래 △의료 우수성 △과학 기반 웰니스 △전통 의학 지식을 태국의 강점으로 소개함
- 아로카고 CEO는 태국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전문 인력 △현대 문화 △혁신성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태국 의료·웰니스 업체들의 글로벌 인지도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함
- 기관의 청장은 건강이 여행의 미래를 재정의하고 있다며, 전략적 디지털 협력으로 글로벌 여행객들이 태국의 헬스케어 및 웰니스 서비스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개함
- 글로벌 이용자는 아로카고 웹사이트를 통해 태국의 의료·웰니스 서비스를 검색 및 비교하고 제공기관과 직접 연결할 수 있음

[Thaiger, 2026.07.06.;PRWeb, 2026.07.07.]

22 사운드 피지션스, 참헬스 EHR 도입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유연성 확보

- 미국 의료기관 사운드 피지션스(Sound Physicians)가 기존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업체의 폐업 예고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 EHR 플랫폼인 참헬스(CharmHealth)를 도입해 원격의료 서비스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함



- 사운드 피지션스는 30개 이상의 업체를 검토 후 후보 3곳을 선정했으며, 원격의료 기능과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통합의 유연성을 보유한 참헬스를 최종 공급업체로 선정함
- 이후 개념 증명(Proof of Concept)* 과정을 거쳐 실제 플랫폼을 테스트하며 자사의 원격의료 업무 흐름과 규정 준수 요건에 맞게 최적화함
- 참헬스는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표준(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FHIR) 방식과 비FHIR 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 시 추가 맞춤 개발까지 지원해 사운드 피지션스의 기존 사내 소프트웨어 및 업무 흐름과 원활하게 연동시킴
- 플랫폼은 AI 기반 자동 문서작성 기능을 플랫폼 내장형으로 제공하며, 사운드 피지션스는 현재 의료진 그룹에 도입하는 과정에 있음
- 전환 이후 의사들의 시간당 진료 환자 수 증가 및 업무 효율 개선으로 인건비 절감 효과도 나타났으며, 양사는 책임의료기관(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 확대에 맞춰 협력을 지속 확대할 계획임

** △병원 △의원 △지역사회 보건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환자에게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HCI Innovation Group, 2026.07.08.;Sound Physicians, 2026.07.]

23 헬스뮤추얼 그룹-온코케어, 범아시아 암 환자를 위한 원스톱 케어 협약 체결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헬스케어 관리 그룹인 홍콩 헬스뮤추얼 그룹(HealthMutual Group, HMG)과 아시아 종양 전문기업 타마린드 헬스(Tamarind Health) 산하 온코케어(OncoCare)가 '범아시아 전략적 협력 협약(Pan-Asian Strategic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함
-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체결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기존 홍콩 지역 의료서비스에서 범아시아 지역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함
- 특히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를 핵심 거점으로 두고 △조기 검진 △다학제 팀(Multidisciplinary Team, MDT) 진단 △국경 간 환자 이송 등을 포괄하는 종합 의료서비스 체계인 '범아시아 폐쇄형 의료 생태계(Pan-Asian Closed-Loop Medical Ecosystem)'를 구축함
- 또한, ①진료 기록 검토부터 ②국경 간 신속 이동 경로 ③임상 치료 ④재무 정산까지 하나의 통합 관리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며, 투명한 의료비 청구를 통해 의료 품질 관리를 강화함
- HMG는 2025년 한 해에만 제후 보험사 고객 7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1억 5,000만 홍콩달러(한화 292억 3,200만 원) 규모의 의료비 규모를 기록했으며, 양사는 주요 암종에 대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도입해 진료비 예측 가능성 및 예산 관리 안정성을 제공함
- 향후 △글로벌 최신 의약품 신속 도입 △맞춤형 유전자 검사 △국경 간 수술 후 재활 관리 등을 추가 도입해, 아시아 지역 민간 암 치료 분야에서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선도해나갈 계획임



[Media OutReach Newswire, 2026.07.09.;Malay Mail, 2026.07.09.]

24 한국·태국·대만, 국가 주도 뷰티관광 육성 경쟁 ... 프랑스는 미용 시술 규제 강화 지속

- △한국 △태국 △대만 정부는 뷰티관광을 국가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다양한 정책 모델을 추진하는 반면, 프랑스는 미용 시술로 인한 공중보건 위험과 무허가 시술 증가를 이유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성형 및 침습적 피부 시술 홍보를 금지하는 등 규제를 지속하고 있음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Korea Tourism Organization, KTO)는 2026년 성수기를 앞두고 뷰티관광을 외화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공식 지정했으며, 이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지출 중 △피부과 시술이 55.7% △성형·재건 수술이 21.1%를 차지해 전체 매출의 4분의 3 이상이 미용 및 피부 시술에 집중된 현상을 반영한 조치임
- 태국 관광청(TAT)은 웰니스 관광 상품을 구성할 때 ①리트리트(Retreats) ②리추얼(Rituals) ③릴스(Reels) ④리듬(Rhythms) ⑤렐레이션(Relations) 다섯 가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5대 축(Five Pillars)' 모델을 공식 기준으로 마련함
- 대만은 보건복지부 주도로 대만 의료관광 발전 협회(Taiwan Medical Tourism Development Association, TMTDA)를 통해 '메드투어(Medtour)'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베이타우(Beitou) 지역에서는 비침습 피부 시술과 천연 유황 온천을 결합한 통합 웰니스 지역을 조성함
- 이는 동아시아권의 미용 시술 상업화 및 규제 완화와 유럽권의 미용 시술 규제 강화라는 상반된 전략으로 글로벌 관광시장이 양분되고 있으며, 향후 해외 시술 부작용에 따른 국가 간 의료 책임 분쟁 등 법적 마찰 가능성도 제기됨

[PR Newswire, 2026.06.23.;Travel And Tour World, 2026.07.08.]

무역통상

의료 인공지능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의료서비스

글로벌 행사



2026 병원 약국 바이어 컨퍼런스

2026 Hospital Pharmacy Buyer Conference

- 개최도시 미국 올랜도
 행사일정 2026.08.09.~2026.08.10.
 행사주제 공급자와 바이어를 하나로
 주요내용 △ACPE 인증 CE 크레딧 교육 세션 △네트워킹 △공급업체와의 1:1 매칭 방식인 바이어 라운지 등을 운영하며, △원가 절감 △신제품 △신기술 △의료서비스 등 병원 약국 현장의 실질적 문제 해결에 초점



메디케이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즈 컨퍼런스 2026

Medicaid Enterprise Systems Conference 2026(MESC 2026)

- 개최도시 미국 포틀랜드
 행사일정 2026.08.17.~2026.08.20.
 행사주제 메디케이드 시스템 혁신과 정책을 논의하는 국가 협력 플랫폼
 주요내용 △주정부 △연방정부 △민간 부문 전문가가 모여 메디케이드 시스템 및 관련 보건 정책을 논의하며 △메디케이드 시스템 조달·운영·모듈화 △의료정보기술 (HIT) △진료정보교환(HIE) 등 주요 트랙 운영



엠디디바이스 보스턴 2026

MEDevice Boston 2026

- 개최도시 미국 보스턴
 행사일정 2026.08.26.~2026.08.27.
 행사주제 대화에서 시작되는 메드테크 혁신
 주요내용 미국 동부 최대 의료기기 혁신 엑스포로, 17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해 △제품 발굴 △파트너십 △AI △규제 트렌드 등을 다루는 메드테크 전문 행사



메드테크 월드 아시아 2026

MedTech World Asia 2026

- 개최도시 중국 홍콩
 행사일정 2026.08.26.~2026.08.28.
 행사주제 아시아·태평양 메드테크 혁신과 투자를 위한 글로벌 서밋
 주요내용 △투자자 △스타트업 △병원 △규제기관이 모여 △AI △디지털헬스 △의료기기 혁신을 논의하고 투자 매칭 및 피칭, 어워즈 프로그램 운영



2026 트레이서빌리티 세미나

2026 Traceability Seminar

- 개최도시 미국 워싱턴 D.C.
 행사일정 2026.08.31.~2026.09.02.
 행사주제 헬스케어 공급망 리더들의 연례 세미나
 주요내용 헬스케어유통연맹(HDA)이 주관하는 의약품 공급망 추적성 전문 세미나로, △의약품 공급망 보안법(DSCSA) 이행 △규제 동향 △국가약품코드(NDC) 전환 등 제약 공급망 핵심 현안을 다루는 연례 행사